

# 계육산업뉴스

## Broiler industry

사단법인 **한국계육협회** (Korea Broiler Council)

발행인 : 김홍국 편집 : 이재하 · 김태은  
(우 137-044)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6(남도빌딩 601호)  
☎ (02)536-9855 ~ 6 FAX (02)595-6028  
기획편집 : 민자미디어 ☎ (02)263-3598



제4권 제4호 통권34호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기본식단에 더 많은 닭고기를

- 말레이시아 닭고기 불매운동을 보며 -

최근 칼라룸프르 발 외신은 시위가 거의 없는 문화의 말레이시아에서 지난 2월 27일에 「닭고기 사먹지 말자」는 불매운동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다민족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종교상의 문제로 돼지고기(회교도), 쇠고기(힌두교도)를 기피하기도 하지만 닭고기 만은 금기시 하지 않는 문화로 축산업 외형 총 42억링깃(1조9천억원 상당) 중 닭고기 소비가 20억링깃(9천억원 상당)으로 44%를 점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12억링깃, 계란 10억링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닭고기 불매운동이 일어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말레이시아 근로자노조 총연합회와 전국 공공 및 민간부문 근로자노조 총연합회 산하 130개 단체가 주도한 불매운동의 이유는 정부가 닭고기 농장가격을 kg당 3.05링깃(약 1,370원)에서 3.50링깃(약 1,580원)으로, kg당 소매가격을 4.90링깃(약 2,200원)에서 5.40링깃(약 2,430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이보다 심해 지난해 말 닭고기 kg당 3.9링깃(약 1,755원)정도였던 것이 금년도에 들어와 5.4링깃(약 2,430원)으로 폭등하게 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마하티르 총리가 나서 통제대상인 닭고기 가격의 인상을 허용한 것은 닭생산비가 외환사정, 사료값 인상 등으로 계속 늘고 있어 불가피한 조처라고 해명하며 소비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불매운동으로 위기를 느낀 양계업자는 물론 생산자 단체와 닭유통 중간상인들이 합심하여 가격인상의 불가피성과 해명에 나서 진화하였으나 판매량은 20~30%가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지 신문 등은 판매량의 감소원인이 불매운동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불경기에 있다고 평해 닭고기 불매운동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의 요인은 다각도로 분석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말레이시아인들의 식탁에는 닭고기 요리가 빠질 수 없다는 기본식단의 문제로 귀결되었

다.

결과적으로 닭고기 가격은 소비자 장바구니 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만 닭고기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육류나 생선에 비하여 가장 싼 보편적인 먹거리 이기에 소비자들은 닭고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고 말레이시아 경제가 악화되도 닭고기 인상만은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으로 작년 12월 이후 닭고기 소비가 30%이상 감소된 후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본회는 계열주체들을 중심으로 소비촉진 홍보기금을 모아 닭고기요리책자 제작, 닭고기 우수성 전단지제작 배포, 신문·라디오 등 매스컴 광고, 닭고기 부분육 요리경연대회 개최 등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활동을 다각도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영양적으로 우수한 닭고기는 가격도 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장 적합한 동물성 단백질이다. 한국 식품개발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닭고기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적육에 비해 단백질이 월등하게 높은 반면 지방과 칼로리는 낮아 고단백 저지방 식품의 대표육류로 체중조절에 관심쓰는 운동선수나 모델 등 여성들에게 필수건강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닭날개에 많은 콜라겐은 피부를 윤택하게 해 주고 탄력을 유지시켜 피부노화를 방지해주는 효능이 있다. 또한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다 콜레스테롤치를 낮추는 작용을 하는 리놀레산을 다량 가지고 있다. 가슴살의 근섬유는 가늘고 연하여 소화흡수가 잘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성장발육과 성인들의 체력유지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데도 가격은 생선, 쇠고기, 돼지고기에 비해 월등히 낮기 때문에 IMF시대에 체력유지를 위한 가장 경제적인 육류이다.

우리의 식단에서 닭고기를 더욱 가까이 하자. 우리의 기본식단에 닭고기가 더 많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